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강원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스무숲도서관	씨앗의 여행 / 마티아 프리망 / 책놀이쥬	나는 이름을 알수 없는 커다란 나무 아래, 버섯 사이에 툭 떨어졌어. 버섯들은 내게 수천 가지 질문을 퍼부었지. 좀 무서웠어. 버섯들이 낫설었어. 내가 이미 숲속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처음엔 몰랐거든.
2	뒤뚜르어린이도서관	어느 좋은 날 / 다니엘 네스켄스, 미렌 아시 아인 로라 / 봄별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국경을 넘어야 할 텐데." "넘을 거야." "바다도 건너야 할 텐데." "건널 거야." "사막도 지나가야 할 텐데." "지나갈 거야."
3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바다를 존중하세요>, 키아라 카르미타티 글, 마리아키아라 디조르조 그림, 김현주 옮김. 책속물고기.	나는 오랫동안 바다를 여행하고 육지로 돌아온 바다 주민으로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바다는 파랑도 초록도 아니며, 바다가 죽으면 모두 죽는다는 사실어요. (p.101)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4	앞짱어린이도서관	착한 소비는 없다/최원형/자연과생태	<p>생일은 생명이 태어난 걸 축하하는 날이야. 기쁘고 행복한 날이지. 그러나 소나 조개는 어떠니? 사람들이 먹으려고 잡아서 죽게 됐어.생명이 태어난 걸 축하하면서, 다른 생명이 죽는 걸 먹는다는 것은 할머니 생각엔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아. 많은 사람들이 생일이면 일부러 고기를 더 먹는데, 우리 집은 생일날만큼은 고기를 안 먹어. (p.141)</p>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예다움도서관/백정희	나무처럼 살아간다 /리즈 마빈/덴스토리	우리를 둘러싼 존재들과 어우러기 위한 노력은 굉장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2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우리는 안녕 /박준/난다	안녕, 안녕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안녕, 안녕은 말하기 싫을 때에도 해야 하는 말이야.
3	호수공원작은도서관/김연희	약당의 무게 /이현 /휴먼어린이	개도 사람도 다 행복한 세상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4	그루터기 작은도서관 /이병무	옥스퍼드의 4증인/이언 피어스, 김석희 옮김/중앙 M&B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무지에서 나온 말이니깐요.'
5	강촌공원5분걸음예쁜작은도서관/전성희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임이랑/바다출판사	식물의 멈춤에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만, 그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넘치게 주는 것이 제일 위험해요.
6	온가족비전도서관/양수정	호수 아이와 세 개의 씨앗/한경은/노란상상	작은 씨앗이 도시를 숲으로 바꾸는 동안 나는 귀여운 소녀의 아빠가 되고, 또 나를 닮은 남자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7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이병무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 / 진중권/ 천년의상상	에른스트 하우슈카의 말대로, 인간들이 동물이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 동물들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8	고양작은도서관/심은경	긴긴밤/루리/문학동네	"누구든 너를 좋아하게 되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너를 관찰하겠지, 하지만 점점 너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를 눈여겨보게 되고, 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될 거고, 네가 걸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도 귀 기울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9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황수경	큰오색딱따구리의 육아일기/김성호/웅진지식하우스	<p>숨도 쉬지 못하고 읽은 책 둘째마저 없어진 등지에서 아빠새가 둘째를 찾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등지에 다시 온 아빠새가 이번에는 바로 등지안을 들여다 봅니다. 아. ... 이것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새가 나무 전체를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가지란 가지는 모두, 그리고 평소에 전혀 가지 않았던 등지 한참 아래의 줄기까지 허겁지겁 이동하며 살살이 훑어보기 시작합니다</p>
---	-------------------	---------------------------	--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책돌이도서관/신화숙	돼지 이야기/ 유리 글 그림/이야기꽃	돼지는 깨끗한 곳을 좋아하고 땅파기를 좋아하지만 땅을 밟고 사는 돼지는 열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새끼 돼지는 태어나자마자 이빨과 꼬리를 잘리고 딱 3주만 젖을 먹고나면 어미와 헤어져 6개월 동안 살을 찌운 뒤 사람들이 먹을 고기가 됩니다. 어미는 걸을수도 몸을 돌릴수도 고개를 돌려 제 엉덩이를 볼 수조차 없는 좁은 사육틀에서 인공수정으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평생을 살다 갑니다..
2	아이숲어린이도서관/문상희	문어의 영혼/ 사이 몽고메리/글항아리	문어와 작가가 나눈 교감을 생생한 글로 표현했다. 자연의 모든 것에 깃든 생명을 다시 느끼며 다만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개인회원/손수정	나의 비거니즘 만화/보선/푸른숲	비건은 인간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에 만난 '나의 비거니즘 만화'는 비건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줄여주는 책이다. 책에서 말하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가지라도 실천한다면 '나는 비거니즘을 추구합니다'라고 이야기 해도 된다고 이야기 한다. 비건을 지향하고 싶지만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비건지향에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2	개인회원/김경희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김탁환/해냄	<너는 논 사람, 나는 그냥 사람>- 잘 잤어? 컨디션은 어때?뿌리 내리기 좋으라고 2센티미터 정도만 남기고 물을 다 빼두긴 했지. 아직 여기가 낯설지? 모판에서 자랄 때와는 많이 다를거야. 278종의 친구들과 함께 가을까지 무럭무럭 자라야 해. 다 같은 논 사람이지만, 좋아하는 바람도, 햇볕도, 벌레 소리도, 물의 온도도 제각각이어서 불편한 점도 있을 거야.
3	예성 작은도서관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권정민 /문학동네	— 이제 당신의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어디든 아주 가까이에서 당신을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 당신에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적성에 맞지 않는 곳이라도 조금은 버텨 봐야 한다는 것. 견디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4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적당한 거리 전소영/달그림	그렇게 모두 다름을 알아가고 그에 맞는 손길을 주는 것. 그렇게 너와 내가 갖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일지도. 관심이 지나쳐 물이 넘치면 뿌리가 물러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곧 말라 버리지.
5	그나라어린이도서관	63일/허정윤 글, 고정순 그림/ 킨더랜드	동물들을 경시하는 인간들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63일> 작은 케이지 안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애도하며 이 그림책을 소개합니다.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이은주	랩걸/ 호프 자런/ 알마출판사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이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난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불가능하면서도 필연적인 존재들이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우종영 지음 /한성수 엮음/메이븐	막 싹을 틔운 어린 나무가 생장을 마다하는 이유는 땅속의 뿌리 때문이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 낸 소량의 영양분을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를 키우는 데 쓴다. 눈에 보이는 생장보다는 자기 안의 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 뿌리에 온 힘을 쏟는 어린 시절을 '유형기'라고 한다.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채은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켈 실버스타인 글, 그림 / 이재명 옮김 / 시공주니어	"애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나무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 버린 나무 밑둥일 뿐이야. 미안해....." "이젠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애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혜령	안녕, 내친구 루디/미스타 쿠 글 그림/팜파스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루디와 나는 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루디는 잠자기 선수가 되었어요.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송은영	긴긴밤/루리/문학동네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네
2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소리마을작은도서관/김 동미	식물의 힘/스티븐 리츠 짓고 수지보스 다 듬고 오숙 율김/여문책	그린 브롱크스 머신 선언 중 어린이에게 셈을 가르치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결정적이고 중요하다. 뫼이 중한디" 잊고 살아가는 우리
3	꿈틀어린이도서관/이소 영	뛰어라 메뚜기/다시마 세이조/㈜보림출판 사	하지만 메뚜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으니, 정말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메뚜기는 높이높이 날았습 니다. 자기 날개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4	와글와글작은도서관/강 현정	동물들의 도시/호안 네그레스콜로르 /논장	니나는 "정글 도시"로 가 동물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별세계 이야기'를 좋아하는 원숭이, '신화와 전설'을 좋아하는 홍학 등 이 니나를 둘러싸고 니나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을 둘러싼 풍경입니다. 풀을 뜯고 있는 가 젤의 뒷편으로 눈에 반쯤 잠긴 고물 자동차가 있고, 버려진 신발에서 풀들이 자랍니다. 니나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동물들의 모습 한편 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도 섞여 있구요. 인간이 쓰다 버린 물건들, 자동차, 건물들... 이곳은 한때 도시였지만, 지금은 자연에 점령당한 인간이 살지 않는 '정글 도시'입니다. 인간 문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평화로운 동물들의 모습과 대비된 풍경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편,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5	생글작은도서관/주영자	긴긴밤/루리/문학동네	이 책은 지구상의 마지막 하나가 된 흰바위코뿔소 노든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없는 긴긴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찾아 가 는 이야기이다.
6	용강동작은도서관/손선 미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 찰리 맥커시/ 상상의 힘	"난 아주 작아." 두더지가 말했어요 "그러네." 소년이 말했지요 "그렇지만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7	홍부네그림책도서관/김 진희	나는 사자/ 경혜원/비룡소	하지만 함께하는 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야.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울산경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책누리작은도서관/박지혜	고양이 마음사전/나응식/주니어김영사	너와 나의 마음의 거리는 1.8미터부터 시작돼. 조금씩 좋은 느낌으로 이 거리를 좁혀가자
2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책사랑작은도서관/서정선	루루야 내 동생이 되어줄래?/김경희/키위 북스	루루, 이제부터 넌 진짜 내 동생이야.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열심히 배워서 너를 잘 키울 거야
3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다올림작은도서관/최영순	우리 산책할까요/임정아/한길사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면서도 선뜻 키우려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별을 견디기 힘들어서'일 것이다.
4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아름드리작은도서관/김정숙	앵커씨의 행복이야기/남궁정희/노란돼지	앵커씨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5	더불어숲작은도서관/이귀연	안녕, 동백숲 작은 집/하얼과 페달/열매하 나	일상에서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고 너무 흔해서 당연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전기를 쓰지 않는 시간을 살아 보고 나서야 오 히려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p.249)
6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문신 임	아무도 미워하지않는 개의 죽음/하재영/창 비	이누렁이는 도살장 구석의 케이지에 혼자 갇혀 있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누렁이는 낯 나간 표정으로 허공에 매달린 친구를 바라보았다. (p.237)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인천지부			
소속 / 이름	책 사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춤추는달팽이도서관/ 최선미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 캐시어 바디 / 현대지성출판사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꽃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 왔다. 사랑을 표현할 때도, 애도하는 마음을 나타내거나 사과하려고 할 때도... 전쟁을 기념하거나 반대할 때도.."
2 푸른마을함박도서관 / 김지선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마이클 셀렌버거 지음/부키 출판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연을 보호하려면 실제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아가는 과정.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3 와글와글작은도서관/ 구순례		큰 오색딱따구리의 육아일기 김성호/ 웅진지식하우스	이 책은 큰오색딱따구리가 새끼를 키워내는 50일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세한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어 하루의 특징적인 행동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큰오색딱따구리가 동지를 튼 나무에 찾아온 여러 새들의 모습도 함께 담았습니다

<p>4 늘푸른어린이도서관 / 이수정</p>		<p>적당한 거리 / 전소영 / 달그림</p>	<p>“네 화분들은 어쩔 그리 싱그러워?” 적당해서 그래. 뭐든 적당한 건 어렵지만 말이야. 적당한 햇빛, 적당한 흙, 적당한 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우리네 사이처럼!</p>
<p>5 늘푸른어린이도서관 / 이수정</p>		<p>절멸 / 이종시 엮음 / 위크룸프레스</p>	<p>멸종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 왜냐하면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에도 이 정도였던 적은 없었으니까. 사람이나 동물은 죽음을 맞는다는 것에 대해 같다. 허나 순리대로 사는 동물은 타의에 의해 죽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순리대로 죽는다.</p>
<p>6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 고현정</p>		<p>적당한 거리/전소영/달그림</p>	<p>“네 화분들은 어쩔 그리 싱그러워?” 적당해서 그래. 뭐든 적당한 건 어렵지만 말이야. 적당한 햇빛, 적당한 흙, 적당한 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우리네 사이처럼.</p>
<p>7 짱뚱이어린이도서관 / 이소운</p>		<p>서로를 보다/윤여림/낮은산</p>	<p>"글썸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달려 보지 못했거든." 동물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고 있는 인간이 행복해 보일까요?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동물과 동물원에 갇힌 동물의 대화를 들어봐요</p>
<p>8 콩세알도서관/문점숙</p>		<p>꽃은 알고 있다/퍼트리샤 윌트셔 지음 김아림 옮김/웅진 지식하우스</p>	<p>하지만 내가 그동안 몇 번이고 지켜봤듯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했던 건 언제나 자연의 아주 작은 실마리였다.</p>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범지기10단지푸른작은도서관/오유미	가족이 있습니다/ 김유 글, 조원희 그림/뜨인돌/ 검은강아지/박정접 글그림/뜨인돌	할아버지와 강아지는 우연히 만나 가족이 되었고, 함께 밥을 먹고, 옆에 있어주고 시간을 나누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뻐도 슬퍼도 아파도 함께하는 가족은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만나고,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으러 갑니다. 할아버지와 강아지는 가족이니까요. 박정접 작가의 '검은 강아지'와는 정 반대의 그림책입니다. '검은 강아지'는 그렇게 먹먹함을 주고 떠나가지만, 김유 작가의 '가족이 있습니다'는 또다른 먹먹함으로 편안함을 줍니다. '가족이 있습니다'와 '검은 강아지'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울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우리순이 어디가니/ 심심해서 그랬어/ 바빠요 바빠/ 우리끼리 가자 글: 윤구병 그림: 이태수/출판사: 보리	<우리순이 어디가니?> 봄에 관한 책에는 순이랑 엄마랑 함께 밭을 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새참을 갖다드리러 가면서 봄 날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과 봄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여름책 <심심해서 그랬어> 에는 채소밭과 집짐승, 농촌의 여름 풍경이 나와요 가을에 관한 책 <바빠요 바빠>에는, 추수하는 풍경과 김장하는 문화를 <우리끼리 가자 >겨울에 관한 책에는 겨울잠에 들어가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잊혀가는 소중한 문화와 농촌풍경, 사계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동물과 꽃의 종류에 대해 찾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정겨운 시골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3	초롱이네도서관/오혜자	화분을 키워주세요 지은이 : 진 자이언 글, 마거릿 블로이 그림 이엄 그림/출판사 : 웅진닷컴	집안에서 화분 하나 잘 간수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영락없이 시들거리고 물러지곤 합니다. 식물을 돌보는 초록 색손가락을 가진 토미라는 아이의 마음 씩씩이를 보면서 '무엇이 중헌디'를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 책을 다시 읽으며 작년에 봉선화 씨앗이 싹을 많이 틔워서 화분을 드라이브스루로 나누었던니 이웃들이 정말 좋아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4	해바라기도서관/홍근옥	우리가족은 정원사입니다 지은이 : 조안나 게인즈와 아이들 글 줄리아나 스웨이니 그림 /출판사 : 나는 별	작은 화분 하나가 우리 가족을 정원사로 만들었다고 한다 . 새로운 시도는 늘 쉽지 않듯이 정원을 가꾸는 건 힘들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니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어려웠던 만큼 기쁨도 컸답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요 라 말한다. 이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다 보면 정원과 텃밭을 같이 만들어 실용적으로 식물을 배치하는 지혜를, 정원을 가꾸면서 삶의 태도와 철학까지 배워나가는 아이들, 이 그림책은 마음의 보양식을 먹은 듯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5	도토리숲작은도서관/윤순현	미미와 나/이승희 글 그림/고래벳속	글이없는 그림책이지만 냥이와의 동거가 사람과의 동거처럼 서로에게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합니다.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호남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간일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여우네도서관/김명희	숲에서 한나절/남영화/2020/남해의봄날	간혹 사람들은 '난 왜 이 모양이지?'라는 말로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다. 하지만 도토리야 밤이 동그랗게 생긴 데는 이렇게 당연한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긴 데도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p.191)
2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김경희	나무수업/페터 볼라벤/장혜경옮김/이마	모든 나무가 동일한 성과를 올리도록 나무들이 서로서로 보폭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균형과 조절은 지하에서 뿌리를 통해 일어난다. 그곳에서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 많이 가진 자는 주고 가난한 자는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균류들 또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활한 분배를 돕는다. (p.29~30)